제24회 ·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결정사안】

총무처에서 수립한 시국관련 시위전력자의 행정고시 면접 불합격 방침에 따라 박문화 등 5명이 제24회(1980년) 및 제25회(1981년) 행정고시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총무처에서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면접 응시자들을 불합격시킨 사건으로 그중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박문화(당24세)는 2회 연속으로 불합격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2. 1980. 총무처장관은 "앞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고시에 있어서 국가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라. 학교 다닐 때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하라"고 구두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총무처는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시위 관련자들을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3. 위 방침에 따라 총무처는 제24회 및 제25회 면접시험 실시 이전에, 면접 응시자들의 각 대학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응시자들의 시위전력 자료를 넘겨받아, 시위전력자 명단을 작성한 후 면접위원들에게 통보하여 불합격시키도록 요구하였다.

4. 면접위원들은 총무처의 요청에 의해 자율적 평가를 포기하고 시위전력이 있는 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탈락시킨바, 이때 박문화, 백종섭, 김현, 윤중기, 윤종규 등 5명은 시위전력자로 지목되어 면접에서 불합격되었다.

5. 총무처장관의 요구는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면접위원들이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총무처 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시위전력이 확인된 위 박문화 등에게 불합격 평가를 한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총무처장관이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에서 위 박문화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일이다.

6. 총무처장관의 이와 같은 위법한 불합격 처분은 위 박문화 등이 국가공무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합

리한 이유로 다른 응시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7. 국가는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 과정에서 총무처 관계자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면접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기를 포기하고 불합격 점수를 주어 2차례에 걸쳐 행정고시 면접시험에 불합격시킨 위법행위에 대하여 박문화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국가는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라-7184, 제24회・제25회 행정고등고시 면접탈락 사건

【신청인】 박문석

【결정일】 2008년 11월 18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신청인 박문석은 형 박문화가 1980. 제24회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3차 면접과정에서 불합격하였고, 다음해 1981.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도 불합격한 것을 비관하여 1982. 1.경 경북 청도 야산에서 자살[1]하였는데, 각종 시위전력이 있는 자들을 국가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지시에 의해 불합격한 것이라며 2006. 11. 2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1) 대구 달성군 화원읍장이 발행한 박문석의 「호적등본」을 보면, 박문화는 1982. 1. 1. 오후 2시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동 산164번지에서 사망하였고, 동년 1. 15. 동거하는 박문수에 의해 사망신고되었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총무처가 제24회, 제25회 행정고등고시 면접시험에서 시위전력을 이유로 면접위원들에게 탈락 점수를 주도록 요구하거나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와 상관없이 수험생들을 탈락시켜 불합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서 기본법 제2조1항4호가 규정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취할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어 2008. 5. 6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3. 규명과제

가. 행정고시 면접탈락자의 시위전력 여부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차 합격생 중에서 시위전력이 있는 사람은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하였다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시위전력자 행정고시 면접탈락 정부방침 여부

총무처장관이 행정고시 면접에서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탈락 요구 여부

총무처 관계자들이 총무처장관의 지시를 받고 면접위원들에게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면접위원들이 그 요구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1) 행정고시 관련 각종 자료[2)]

○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3차 합격자 명단, 3차 면접 시험위원 명단,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 불합격자 2차 점수, 행정고시 3차 면접 불합격자 대학별 징계 내역, 행정고등고시 면접탈락자 현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 1977.~1983. 관보

2) 경북대학교 문서

○ 1978.~1979. 학생징계대장, 1977.~1981. 학장회의록, 1976.~1981. 경북대신문 축쇄판

3) 신문 및 잡지

○ 서울신문 등 일간지 기사, 고시계

나. 진술청취

— 신청인 박문석(박문화의 동생), 박문수(박문화의 형)

—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회 연속 탈락자 백종섭, 배국열, 김현, 제25회, 제26회 행정고시 2회 연속 탈락 윤종규

— 총무처 관계자[3)] 5명

—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4)] 6명, 제24회 행정고시 출제위원 오○○

---

2)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면접탈락자 명단 및 불합격자 점수 및 사유, 행정고시 부적격자 명단, 시국관련 문제행위자 통보, 학사징계 탈락자 명단, 신원 특이자 처리, 참고첩보 등 행정고시 면접 관련 자료 입수를 위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서울정보센터,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기원-448(2008. 10. 22)로 반송하였고, 국가기록원은 자료 없음을 확인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기타 관련자료 관련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되었다"고 인재채용과-124(2008. 2. 5)로 회신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시험위원의 소속이 기재된 전체 명단(제24회 51명, 제25회 41명)"과 "시험 성격", "합격선 및 불합격자 2차 점수", "연도별 통계"를 채용관리과-756(2008. 7. 11)로 회신하였다.

3) 황○○은 이○○의 후임으로 1981. 8. 17.~1981. 11. 2. 까지 고시국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고시국이 인사국으로 편입되었음.

4)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은 강○○, 김○○, 양○○, 박○○, 구○○, 손○○, 조○○, 박○○, 김○○, 박○○ 이다. 박○○(1926년생)은 노환을 이유로 면담조사를 거부하였다. 강○○(2004.경), 박○○(2006.경)는 사망하였고, 구○○는 10년 전에 중풍에 걸렸으며, 김○○은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5] 6명

— 박문화의 대학 지도교수 김○○,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동기[6] 문○○, 김○○, 유○○, 박○○, 장○○, 심○○, 행정학과 77학번 최○○, 장○○, 법정대 정치외교학과 76학번 권○○, 박문화의 동네 친구 서○○

—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중기(제25회 미응시),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자[7] 최○○, 김○○, 나○○, 정○○, 양○○,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후 제26회 행정고시 합격자[8] 김○○, 예○○

—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자 한○○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1980. 전후한 10여 년간 대학생들은 유신철폐, 긴급조치철폐, 학원자유, 노동자 권익 등을 쟁점으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중앙정보부와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주도하에 학원 문제 발생 시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였는데[9], 그 예가 교련교육・학도호국단・교수재임용제・졸업정원제・교수분담지도제・제적생 및 해직교수 처리 등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형사처분을 받거나 학사징계를 받았다[10].

---

5)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은 구○○, 이○○, 김○○, 최○○, 김○○, 유○, 박○○, 유○○이다. 최○○은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회 연속 면접위원은 구○○, 김○○, 김○○, 박○○이다.

6) 경북대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동기 강○○, 권○○, 김○○, 김○○, 김○○, 김○○, 김○○, 남○○, 민○○, 박○○, 박○○, 박○○, 황○○, 배○○, 배○○, 신○○, 심○○, 엄○○, 오○○, 이○○, 이○○, 이○○, 장○○, 채○○, 최○○, 허○○에게 이메일 질의서를 조사4팀-616(2008. 6. 2)으로 발송하였으나, 대부분 답변이 오지 않았고, 이들 중 김○○, 박○○, 박○○, 장○○, 심○○은 면담 및 전화조사를 하였다.

7)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김○○, 나○○, 김○, 김○○, 조○○, 최○○, 한○○, 최○○, 유○○, 곽○○, 신○○, 양○○, 정○○에게 질의서를 조사4팀-958(2008. 8. 19)으로 발송하였으나 최○○, 김○○, 나○○, 정○○ 만이 답변하였고, 양○○은 전화조사를 하였다.

8)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후 제26회 행정고시 합격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손○○, 박○○, 김○○, 박○○, 정○○, 예○○에게 질의서를 조사4팀-958(2008. 8. 19)으로 발송하였으나, 김○○과 예○○만 답변하였다.

9) 국가정보원 발전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학원・간첩편(Ⅵ)-」, 233쪽.

10) 국가정보원 발전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학원・간첩편(Ⅵ)-」, 27-28쪽. 1979. 10.~1980. 5. 17. 기간

총무처에서는 1980년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시험성적 외에도 국가관, 사명감, 충성심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한편, 출신학교로부터 개인의 자료를 제공받고 안기부에 1,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여 재학 중 시국과 관련된 문제 행위자를 별도로 통보받아 합격 심사에 반영시키고 있었다.[11] 당시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은 총무처장관이 관장하였으며, 시험 실시 주무부서는 총무처 고시과였다[12].

행정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한 응시연령(20세~32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시험으로[1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14] 제15회(1974.)부터 제23회(1979.)까지 2차 합격자 중 제21회(1977.) 3명만 최종 불합격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2차 합격자와 최종합격자의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불합격자는 없는 것[15]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제24회, 25회 행정고시 면접에서 2차 합격생이 대규모로 탈락한 사건이 발

동안 283회에 걸쳐 연인원 29만 명이 시위에 가담했고, 1일 최고 가담인원은 89,250명에 이르는 학원소요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으로는 계엄 전국 확대, 휴교는 1979. 10. 27.~11. 18.간 全대학, 1980. 5. 18.~8. 31.간 전 대학에 내려졌고 징계조치(제적 등)를 당한 학생의 수는 모두 541명이었다.

11) 총무처에서 파견된 보안사령부 소속 4급 박○○이 1982. 9. 6. 작성한 「참고첩보」 문서 "총무처 사법고시 응시자 중 ・신원특이자 처리에 부심" 보고서, 2007. 9. 18. 진실화해위원회 제54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한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사건기록 中.

12)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 연혁 참조. 2002년 이전에는 총무처, 행정자치부 고시과에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시험을 주관하였다. 2001. 3. 28. 사법시험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관부서가 변경되어 2002년 이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에서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13)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장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4회 행정고시의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이었고, 1981. 6. 18. 개정된 공무원시험령에 의해 제25회 행정고시의 시험은 「5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4)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 1978. 12. 5 법률 제3150호]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73. 2. 5, 1978. 12. 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1974.~1979. 서울신문, 「관보」 "행정고시 2차 합격자 공고 및 최종합격자 공고".

생하였다.

2. 사건경위

제24회, 제25회, 제26회 행정고시의 최종합격자는 각각 187명, 128명, 109명 등 총 424명이다.[16] 그런데 제24회(1980.) 행정고시의 선발예정인원은 250명(단, 제2차 시험성적이 전 과목 평균 57점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문형 필기시험, 3차 일반 면접시험[17]과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18]를 결정하였다. 1980. 12. 11.~12. 중앙청에서 시행된 3차 면접시험에 2차 시험 합격자 208명이 응시하여 187명은 통과하여 최종합격하였으나 21명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제25회(1981.) 행정고시의 선발예정인원은 150명이었다. 1981. 12. 21.~22. 중앙청에서 열린 3차 면접시험[19]에 제25회 2차 시험 합격자 121명, 시험규정에 따라 1, 2차 시험을 면제[20]받은 제24회 면접탈락자 20명(윤중기는 미응시) 등 총 141명이 응시하여, 제25회 2

---

16) 별첨 자료 1 참조.

17)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 면접위원으로 활동한 박○○은 1981. 2월호『고시계』기고 글에서 "1980년도 제24회 행정고등고시에서 처음 실시된 개인면접시험(1일간)과 집단면접시험(7인을 2인 시험관이 45분 내지 50분간 시험하는 것)에 필자는 처음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도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토의문제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이라는 3개 착안점에서 말문을 열어 토의시켰으며, 필자는 '1980년대 한국행정상과 공무원의 역할'을 길게 토의시켰다"고 적시하였고, 당시 총무처 고시1과장 하○○는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관련 규정에도 없었는데 시범적으로 집단면접시험을 도입하였다고 진술(2008. 10. 6, 조사)한바,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도 집단면접시험이 시행되었다.

18) 공무원임용시험령 [1980. 8. 1 법률 제9988호]. 동시행령 [1981. 6. 18 법률 제1360호]
- 제3차 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 시험합격자(제3차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시험에 있어서는 제2차 시험합격자) 중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 순위에 의하되, 이 경우에 그 배점비율 등은 동률로 하였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되, 이 경우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등은 동률로 하였다.

19) "행정고시 3차 시험 불합격에 관한 진정"에 대한 총무처 민원회신문[고일125-367, 1982. 2. 3]
- 당시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은 수험생의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2명의 면접시험위원이 수험생과의 면담, 수험생 간의 일정한 주제에 대한 집단토의식 면접을 통하여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등의 평정 5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명의 위원이 각각 15점 만점에 평균 10점 이상을 주어야 하며, 위 5개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에 2위원 모두 "하(1점)"로 평정하지 아니하여야 합격하게 되어 있었다.

20) 행정안전부 인사실 채용관리과-756(2008. 7. 1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2
- 1980. 이전 행정고시에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만 존재하다가, 1980. 8. 1. 제3차 면접시험에 불합격자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

차 시험 합격자 112명과 제24회 면접탈락자 16명 등 총 128명이 통과하여 최종합격하였다. 그러나 제25회 2차 시험 합격자 9명과 제24회 면접탈락자 백종섭, 김현, 배국열, 박문화 등 4명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9명 중, 8명은 시험 규정에 의해 면제를 받고, 제26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7명[21]이 최종합격하고 윤종규 1명만이 2회 연속 불합격하였다. 따라서 제24회, 제25회, 제26회 행정고시 제3차 면접시험에서 연속으로 불합격한 사람은 5명이다. 그리고 윤중기는 제24회 면접탈락 후 제25회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3. 사건 조사결과

가. 행정고시 면접탈락자의 시위전력 여부

1) 자료조사

행정안전부[22]에서는 행정고시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최종합격자 명부가 시험단계별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영구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합격자 대장에는 최종합격자만 등재되어 있고, 1963년부터 1979년까지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없으므로 이 시기에 2차 시험 합격자의 3차 면접시험 탈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별첨 1]과 같이 답변하였다.

한편, 당시에 배국열의 모친 김○○가 민원을 제기한바, 총무처에서는 '귀하께서 또한 작년에 떨어진 21명 중 이번에 다시 불합격한 5명의 부모의 신상을 알고 싶다고 하였습니다만 면접시험 평가자료에 부모, 가정관계, 신상자료는 대상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시험은 수험생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지 부모의 지위와 신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며 회신하였다[23].

24회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선(커트라인)은 57.00으로 백종섭(57.55), 김현(61.22), 윤중기(63.00), 배국열(57.22), 박문화(57.61) 모두 합격선을 넘었다. 참고로, 면접탈락자 중 2

지 못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 1983. 3. 14.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1984. 이후 행정고시 제2차 시험 면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2008. 9. 19 조사, 예○○는 시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회 행정고시에서 1차, 2차, 3차 시험을 각각 재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2)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756(2008. 7. 11).

23) 총무처 고일125-367(1982. 2. 3).

차 시험 점수가 가장 낮은 최○○(57.00) 등은 다음 제25회에 합격하였다. 또한 제25회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선(커트라인)은 52.52로 윤종규(62.33)는 합격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손○○(52.71) 등 다른 면접탈락자들은 윤종규보다 2차 시험점수가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별첨 2]와 같이 확인되었다.

박문화의 모교인 경북대학교의 당시 학장회의록[24]을 검토한 결과, 1977. 4. 19. 회의에서는 학생처가 전달한 '문교부 지시사항(4월중 학원대책)'에서 "학생과는 문제예상학생 사태를 파악하고 명단을 작성 지도교수에게 특별지도토록 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사태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각 보고하고 주무자는 색출 처벌할 것", 1978. 11. 10. 회의록에는 '지시사항'으로 "각 대학장은 연행 학생의 가정환경, 평상시 생활면과 소요 당일 동태를 파악 학생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요 원인규명 및 수습방안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학사행정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979. 10. 18. 임시학장회의록에는 '문교부 학술진흥국장 전언'으로 "요선도학생 특별지도, 요선도중 중요학생 격리", '유신대책의 전달사항'으로 "분담지도교수제 철저이행, 주동학생 사전지도 철저, 문제 학생 특별지도와 학부형 감시요망", 1981. 7. 7. 회의록에는 총장이 '유관기관과 협의 사항'에서 "서클 지도를 충실히 할 것, 분담지도 교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충실히 할 것(특히 문제 학생 기록 성실히)", 그리고 "성실히 지도하고 책임감 있는 교수는 우대하고 지도가 불실하여 사고가 나면 공동책임을 물을 것이니 각 대학장은 경각심을 가지기 바람", 1981. 9. 29. 회의록에는 '학생처'가 국가안전기획부 주최 회의 내용을 소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신청인 진술

신청인 박문석[25]은 1978.경인지 1979.경인지는 모르지만 쌀쌀할 무렵 밤에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번으로 재학 중인 형 박문화로부터 "학교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쫓기어 경북대학교 의대 옆 치과병동 강의실로 친구 1명과 같이 도망갔다가 전경들에게 체포되어 대구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대학교 지도교수인지 성명불상 교수가 와서 신원보증을 해주어 각서를 쓰고 풀려났으며[26], 시위가 심각했는지 중부경찰서 서장이 퇴근했

24) 경북대학교 학장회의 참석자는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학장 등이 참석하였다.

25) 2008. 8. 20 조사.

26) 경북대학교 본관 3층 학생과와 문서고를 방문하여 「학생징계대장(1978.~1979.)」, 「학장회의록(1978.~1982)」, 「경북대신문축쇄판(1976.~1981.)」을 열람하였으나 박문화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가 다시 경찰서로 올 정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박문석은 "형 박문화가 1979. 제23회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 불합격하고, 1980. 제24회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였고[27], 3차 면접시험을 본 후 불합격하였다. 이후 형 박문화는 집안형편[28]이 어려워 행정대학원을 다니면서도 7급 공무원 시험 학원강사 생활을 하며 1981. 제25회 3차 면접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29]"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박문화의 대학동기 권○○[30]는 당시 법정대 법학과, 행정과, 정외과 정원이 모두 80명 정도 되었고 1학년 때는 모두 한 반에서 공부를 하였기에 박문화를 잘 알고 있다면서, "1985.경 서울에서 만난 법학과 동기 조○○[31]으로부터 '박문화가 학내집회에 참여하여 시내까지 진출했었는데, 경찰에 쫓기어 의대 건물 옆에 숨어 있다가 전경들에게 잡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당일 훈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대학후배 최○○[32], 장○○[33]은 "1978. 11. 7. 경북대학교 총장 김○○ 퇴진과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학생시위에 당시 경북대학교 재학생 2,000여 명이 운집한 대규모

---

27) 1980.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자 시골 종친회에서 7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기까지 하였다. 집에서는 종친회에서 장학금도 받고 해서 잔치라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면접을 끝내고 집에 온 형 박문화는 "중앙청에서 면접을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복도에서 장관실과 차관실이라는 간판을 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28) 신청인 박문수의 진술에 따르면, 박문화는 부친 박영진, 모친 김태금 슬하에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장남 박문수, 차남 박문화, 삼남 박문석, 여동생으로 박경자, 박의자였다. 박문화는 고등학교 시절에 근면소박하며 과묵하였고, 항상 내일을 기하는 착실한 모범생으로 문예창작에 특별한 재능이 있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장래 희망으로 정치가와 법관의 꿈을 키웠나갔다. 그러나 1975.경 경북도청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퇴직한 후 경주농지계량조합에 계시다가 1975.경 다리에 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아버지 박영진의 사망 이후 집안형편이 안 좋았다. 어머님은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였고, 생활은 아버지의 퇴직금과 시골에 있던 농지 7마지기를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큰형 박문수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월급을 타면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29)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두 번이나 탈락한 형 박문화는 크게 낙담하여 말수도 적어지고 조용히 집에서 생활하였다. 1981. 12. 30. 제25회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며칠 되지 않아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2회 연속으로 불합격한 것을 이유를 비관하여 1982. 1. 1. 경북 청도 야산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0) 2008. 9. 25 조사. 권○○는 경북대학교 법정대 정치외교학과 76학번.

31) 권○○는 조○○이 현재 미국 거주하고 있으며, 박문화와 같이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29일간 구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조사관이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경북대학교 학생징계대장에는 조○○이 1978. 11. 7.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2) 2008. 3. 18, 3. 21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7학번이며, 박문화와는 대구고등학교 동기이다.

33) 2008. 4. 1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7학번.

시위에 참여하였고[34], 그때 박문화도 참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대학동기 유○○[35]은 "박문화가 재학시절 흥사단이라는 서클에서 활동하였으며, 친구들과 술자리나 모임에서 시국 관련하여 토론을 할 때면 격정적으로 정권을 비판했으며, 당시 사회를 비판한 글을 학회지[36]에 실었다가 당시 학장 김○○[37]에게 불려가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며 야단을 맞은 사실이 있으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박문화의 대학동기 심○○[38]은 "1977.~1978.경에 박문화가 사회문제에 대한 글을 학회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행정학과 학생들이 모여 있던 강의실에서 김○○ 학장으로부터 꾸지람 듣는 것을 보았으며, 1978. 11. 7. 경북대학교 학내시위에 전교생의 90% 이상이 참여하였고, 자신도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박문화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훈방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고, 이후 흥사단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대학동기 심○○[39]은 "1980. 제24회 행정고시에서 박문화와 같이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본인은 합격하였으나 박문화는 탈락하였다. 1980. 이전에는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당연히 3차 면접에 전원이 합격하는 경향이었으나 제24회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유래 없이 21명이 탈락한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시 행정고시 합격생들 사이에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위관련자들을 대거 탈락시켰다'는 소문들이 돌았을 정도로 살벌한 시국이었으며, 박문화가 행정고시 면접탈락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고시에서 두 번 연속하여 탈락한 사례가 없었기에 박문화가 제25회 행정고시에는 합격할 줄 알았으나 또다시 탈락하여 박문화도 시위관련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대학동기 문○○, 박○○[40], 김○○[41]도 박문화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

34) 최○○, 장○○은 집회 해산 후 경북대 정문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어 일주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고, 학교당국으로부터 유기정학을 받았다.
35) 2008. 4. 11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36) 2008. 6. 18 조사. 경북대학교 기록관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박문화의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경북대학교 학생과 정○○은 당시 단과대별로 학회지가 발행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폐기되어 찾을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7) 1924. 5. 5생, 당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학장(1999. 사망).
38) 2008. 10. 27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39) 2008. 5. 22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40) 2008. 5. 22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41) 2008. 5. 22, 6. 9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사회를 비판한 글을 학회지에 실었다가 김○○ 학장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지도교수 김○○[42]은 1978. 11. 경북대학교 학생시위에 박문화도 당시 데모 분위기에 휩싸여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경찰서에 가서 신원보증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박문화에 대해서도 신원보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바보 같은 학생이라고 진술하였고, 1981.경 당시 학장실에 김○○과 함께 있었는데 박문화가 학장실 문을 성급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김○○이 '너는 성미가 급해서 안 고치면 행정고시 3차 면접에 떨어진다'고 야단을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은 "김○○ 학장이 박문화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본인이 함께 배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진술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백종섭[43]은 서울대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2학년 재학 중인 1978. 9.경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에서 유신헌법철폐 데모를 하다가 체포되어 노량진경찰서에서 1주일간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고 25일 구류처분을 받아 영등포 구치소에 25일간 구금되었고, 석방 후 학교당국에 의해 1978. 9. 14.부터 1979. 2. 27.까지 유기정학[44]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김현[45]은 1977. 10.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학년 재학 시 대학축제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가 26동 대형강의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가하였는데, 세미나장이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시위농성장으로 변하여 500여 명의 서울대생이 모인 가운데, 앞으로 나가 유신독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마디 하였고, 500명 전원이 관악경찰서로 연행되어 하룻밤을 보내고 훈방되었으며, 그 후 1977. 10. 27.부터 1978. 2. 28.까지 4개월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원래 1980. 2.에 졸업하여야 하는데, 1980. 10. 한 학기 늦게 졸업하였다[46]고 진술하였다.

---

42) 2008. 6. 19, 10. 27 조사.
43) 2008. 4. 2 조사.
44) 서울대학교 학적부에 '학상290-240(78. 10. 4.)에 의거 학칙 제78조 및 제8조 규정 위반 1978. 9. 14.~1979. 2. 28. 까지 유기정학에 처함으로 기재됨.
45) 2008. 5. 17 조사.
46)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2001. 12. 김현이 서울대학교에서 유기정학('77. 10. 27~'78. 2. 28)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결정(보상심의위 제7342호)을 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중기[47]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학년 재학 시절인 1975. 5. 22.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되어 관악경찰서 유치장 수감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되었다가 1975. 11.경 석방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제적당했고[48], 강제입영되어 1975.~1978. 군복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25회, 제26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종규[49]는 1980. 성균관대학교 재학 시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군부가 군 위탁생을 학칙에 근거도 없이 부정 편입한 것에 반대하여 수업거부와 학내민주화 시위를 벌였고, 이후 학생회 발족을 돕고 군부독재철폐 시위 등에 참여하다가 같은 해 5월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학내시위 주도로 수배를 받던 중 5월 하순경에 연행되어 약 한 달 동안 동대문경찰서 지하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6월 하순경 석방된 후, 당시 시위주도 학생들에 대한 처벌지시에 따라 학교에서 처벌[50]을 받았으나 전혀 통보가 없어 이러한 처벌을 받은 사실을 모르다가 졸업 시 단과대학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동 처벌 기록으로 수석 졸업상장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배국열[51]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하여 지체장애 6급 진단을 받았으며, 충남대학교 법대 재학시절 학생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행정고시가 공무원시험이므로 자신이 신체장애자여서 일부러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차라리 사법시험을 공부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소결

행정안전부 인사실에서는 박문화, 김현, 백종섭, 배국열, 윤종규, 윤중기 등의 불합격자들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것인지, 최종합격자 단계에서 탈락한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 자료의 소멸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총무처 회신문에 '이번에 다시 불합격한 5명의 면접시험 평가자료에 부모, 가정관계, 신상자료는 대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한 점과 당시 최종합격자는 3차 시험인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성적

47) 2008. 4. 2 조사.
48) 서울대학교 학적부에 학칙 제52조 및 학상 290-65(1975. 5. 24)에 의거 1975. 5. 23자로 제명 처분함으로 기재됨.
49) 2008. 5. 17 조사.
50) 성균관대학교 학적부에 1980. 7. 29자(학생제36호) 학생징계조치 통보에 의거 근신 처리(′80. 7. 29~ ′80. 8. 28) 된 것으로 기재됨.
51) 2008. 5. 17 조사.

을 합산한 성적 순위에 의하되, 이 경우에는 그 배점비율 등은 동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박문화 등 2회 연속 탈락자들이 만약 3차 면접시험에서 합격하였다면, 당연히 2차 점수로 보아 최종합격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불합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문화 등 2회 연속 탈락자들은 3차 면접에서 불합격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문화가 학생시위로 인해 학교당국에서 징계 받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대학 동기인 권○○ 등이 '박문화가 학내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훈방되었다'고 진술한 점, 경북대학교 학장회의록에 따르면, 학교당국은 시위연행자들에 대해 문제학생으로 판단하여 의견서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유관기관인 문교부, 경찰, 안기부 등에 문제학생의 명단을 보고한 점, 경찰, 안기부 등에서 학원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박문화도 문제학생으로 분류되어 시위전력자로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탈락되었다고 주장한 배국열을 제외한 박문화, 김현, 백종섭, 윤종규, 윤중기는 학생시위전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시위전력자 행정고시 면접탈락 정부방침 여부

1) 자료조사

당시 총무처 고시과에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시험을 주관하였다[52]. 1982. 9. 6.자 보안사령부 직원 4급 박○○이 작성한 『참고첩보』보고서[53]에 의하면 "총무처 사법고시 응시자 중 신원특이자 처리에 부심"이라는 제목 하에 "총무처에서는 80년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시험성적 외에도 국가관, 사명감, 충성심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한편 출신학교로부터 개인의 자료를 제공받고 안기부에 1, 2차 시험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여 재학 중 시국과 관련된 문제행위자를 별도로 통보받아 합격심사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81년도 제23회 사법시험의 경우 1, 2차 시험 합격자 중 재학 시 시국과 관련한 문제학생 11명을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킨 바 있다"고 확인되었다.

1979.~1984. 시험시행 계획공고[54]를 입수한바, 1981. 제25회 행정고시부터 달라진 사항으로 시험과목에 "국민윤리" 과목이 추가되었고, "집단토의식 면접병행실시", "학교성

52)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 연혁.
53) 진실화해위원회에서 2007. 9. 18. 제5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진실규명 결정한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사건기록에서 보안사령부 소속 4급 박○○이 1982. 9. 6. 작성한 참고첩보 문서를 입수하였다.
54) 서울신문(언론재단, http://www.kinds.or.kr)에서 입수한 "1979.~1984. 시험시행 계획공고".

적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국가관, 공직관, 반공 등 정신자세 평가" 등으로 바뀌었으며 1982. 제26회 행정고시까지 그대로 지속되다가, 1983. 제27회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는 "학교성적 및 생활기록"만 반영하였다. 그러나 1984. 제28회 행정고시부터는 다시 일반 면접시험 방법으로 변경된 것이 [별첨 3]과 같이 확인되었다[55].

2) 신청인 진술

신청인 박문석은 "형 박문화가 탈락한 것은 면접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종 시위전력이 있는 자들을 국가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지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박문화의 지도교수 김○○[56]은 "박문화에 대해서는 학교본부나 총무처에 '지도부'(학생면담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빨간 줄(학생시위로 인한 보고나 징계)을 그은 사실도 없다", "만약 박문화에게 빨간 줄이 그어졌다면 당시 경북대학교 본관에 경찰 CP(상주사무실)가 있었고, 행정학과 교수 중에는 앞산(대구 안기부) 끄나풀이 있었으나 누가 빨간 줄을 그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진술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백종섭[57]은 1980. 12.경 제24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을 서울대학교 박○○ 교수[58]와 성명불상 정부종합청사관리소장으로부터 보았으나, 탈락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난 며칠 뒤에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여 서울대 박○○ 교수 연구실로 찾아가 뵈었더니 박○○ 교수로부터 "데모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총무처에서 부적격자로 체크되어 명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면접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55) 행정고시 시험 면제 규정도 1980. 이전 행정고시에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만 존재하다가, 제3차 면접시험에 불합격자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는 1980. 8. 1. 신설되어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들도 적용되었고, 1983. 3. 14.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1984. 이후 행정고시 2차 시험 면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6) 2008. 6. 19, 10. 27 조사.

57) 2008. 4. 2 조사.

58)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2006. 사망).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은 1981. 12.경 서울대학교 유○ 교수와 성명불상의 면접위원으로부터 보았으나 또다시 불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행정고등고시 면접에서 2번이 탈락되다보니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필기 합격하고 면접을 보았다. 서울대 유○ 교수가 면접을 보면서 교수가 "사범대 학생들이 우리 대학원에 많이 온다"면서, 웃으면서 "행시 공부하였느냐"고 물어보아, "교수님께서 면접을 보셨고 떨어졌다"고 말했더니, ○○ 교수가 "그래" 하고 아무 말도 없었다. 대학원 면접이 끝난 후 유○ 교수에게 "행정고시 면접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더니, 이틀 뒤에 유○ 교수로부터 "이미 시위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기관에서 체크 조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적격자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말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김현[59]은 1980. 12.경 제24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을 보고 난 후 합격자 발표 때 총무처에 전화해서 탈락된 것을 알았다. 당시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안기부에서 시위전력자 등은 배제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서울대학교 김○○ 교수를 찾아가 물어보니 "시위전력자라고 해서 탈락되었다"고 하였으며, 다른 교수들로부터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1980.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탈락된 후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기 때문에 1981.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60].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중기[61]는 1980. 제24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을 보았는데 성명불상 면접위원이 "자네는 왜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녔는가" 물어보아, 학생시위 관련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군대도 갔다 오고 시골에서 농사도 지었습니다"라고 대

59) 2008. 5. 17 조사.

60) 김현은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이후 서울대학교 송○○ 지도교수, 김○○ 교수와 상의를 하였더니 시국 관련자라 탈락된 것이니 다른 길을 찾아보라 하시며 사법시험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하여 이후 사법시험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982. 제23회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1차, 2차 시험에 합격하고 3차 면접을 보았으나 이때도 시위관련자라고하여 사법시험 면접에서 탈락되어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살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국유학 준비를 하였다. 당시 국비로 미국유학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국비유학생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또다시 면접과정에서 탈락하였다. 그러나 운 좋게 SK그룹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금을 받게 되어 미국유학길에 올랐고, 미국유학 중에 사법시험 면접시험을 한 번 더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싶지 않아 1983. 10월에 미국에서 잠시 1주일간 귀국하여 1983. 제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을 재응시하였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송○○ 교수가 친필로 추천서를 써주었고, 송○○ 교수께서 친구인 현○○ 안기부차장에게 부탁해주어 1983. 제24회 사법시험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1) 2008. 4. 2 조사.

답하였고, 또 면접위원이 “국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여 자기 생각을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을 앞두고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데모를 했던 선배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사법고시는 괜찮은데, 행정고시에서는 시위전력자는 배제한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제24회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이유는 시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탈락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시험면제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1981.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는 들러리를 선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에 진정할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진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25회, 제26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종규[62]는 1981.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은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치렀으며, 개별면접의 경우 박○○[63] 교수가 면접하였는데, 면접 과정에서 본인에게 성적이 매우 좋다는 말이 있었고, 면접 질문[64] 내용도 우호적이고 격려 위주의 말을 하여 당연히 합격하는 줄로 알고 있었으나 결국 불합격하였고, 합격자 발표 후 고시 잡지사들이 주관하는 합격생 좌담회에 참석했던 성균관대학교 친구로부터 성명불상 면접위원이 “차석 합격한 학생이 매우 우수해서 구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시위전력으로 인해 구제하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65].

이후 시험면제 규정에 의해 1982. 제26회 행정고시에서부터 시행된 직렬별 모집구분에 따라 재경직으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면접을 잘 보아[66] 합격할 줄 알았으나 1982. 제26회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발표를 통해 불합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1982. 12. 31. 총무처장관 김○○ 앞으로 “학원사태 관련자도 동일 궤도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들을 기회조차 박탈함은 지나친 기우 내지 소극적 사고가 아닌지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좁은 땅에서 자꾸만 편을 가르고 반대를 만들기보다는 국가사회에 그 뜻을 구현하고

62) 2008. 5. 17 조사.

63)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64) 윤종규는 개별면접에서는 응시동기, 포부, 시험성적 등에 관한 질문과 함께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집단면접의 경우에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공무원과 사생활의 윤리,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론이 끝난 후 면접을 보았던 팀 동료들로부터 잘했다는 격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65) 당시 고시 잡지는 고시계와 월간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어느 잡지사 좌담회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66) 윤종규는 재경직으로 면접을 보았기에 개별면접에서는 근무하고 싶은 부서, 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과 이유, 통화관리정책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집단면접은 토의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부 내용을 영어로 표현해보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에 답하고 나니 면접위원이 호평을 해주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추후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가 면접위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67]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총무처 관계자 진술

총무처 고시국장 이○○[68]은 "1979.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태가 일어났고, 데모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때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김○○[69] 총무처장관 등 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무처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1980. 가을경 고시국[70] 성명불상 고시과 과장이 김○○ 장관에게 결재를 맡으러 갔다가, "앞으로 행정고등고시로 공무원을 뽑을 때 국가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라. 학교 다닐 때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 총무처장관은 군 출신이라 굉장히 즉흥적이었는데,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이와 같이 지시[71]하였으며, 장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총무처 고시국에서 논의하여 당시 행정고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소수점까지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기에 점수를 바꿔치기하거나 조작할 수 없어 구두시험(면접)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안기부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24회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성명불상 고시국 계장이 안기부로 가져갔고, 안기부에서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여, 시위로 처벌을 받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불합격자로 표시하

67) 윤종규는 A4용지 크기의 편지지 4페이지 분량의 탄원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68) 2008. 7. 29 조사. 이○○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1979. 11. 8~1981. 8. 17까지 총무처 고시국장을 역임. 이○○은 현재 81세의 고령(1928. 7. 29생)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 속이 후련하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69) 제5대 총무처장관(1979. 12~1982. 5) 역임. 출입국관리국을 통한 출입국사실 조회결과 1990. 9. 1자로 출국하여 2008. 8. 14 현재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시험을 주관한 김○○ 총무처장관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조사하지 못하였다.

70) 고시국이 총무처 인사국 내에 고시과로 있다가 1978년 고시국으로 승격되었다. 고시국은 지방공무원시험을 제외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국가공무원시험(중앙)을 관장하였으며, 고시국에는 고시1과, 고시2과, 고시3과로 운영되었다. 당시 고시국장(일반직 2급) 산하에, 고시1과는 하○○과장, 3계(계장은 사무관급)로 구성되어 서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시2과는 박○○과장, 2계로 구성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시3과는 권○○과장, 2계로 구성, 출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전체 직원은 33명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71) 담당조사관이 사법시험과 착각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문의하자, 이○○은 행정고등고시가 맞다, 사법고시는 자격시험이고, 행정고등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이다, 분명 행정고등고시 시험에서 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여 명단을 가지고 왔고, 명단은 직접 보지 못해서 몇 명이 불합격자로 표시되어 왔는지는 모르나 고시국장실에서 성명불상 고시국 직원으로부터 "국장님, 안기부에서 2차 합격자 명단 중에서 몇 사람은 시국데모를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대답하였는데, 당시에는 안기부에 대한 일들은 한마디도 반론을 하거나 함부로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고 안기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되는 시기였다고 진술하였다.

총무처 고시1과장 하○○[72]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후 학생데모가 많았고 시국도 매우 어수선하였으며, 당시 고시1과는 국서무, 행정, 시험채점, 합격 여부를 통보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국장으로부터 김○○ 총무처장관이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부터 시위전력자는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면접을 강화하여 떨어뜨려라"는 구두지시를 했다고 전달받았으며, 이어서 이○○ 국장으로부터 "시위관련자는 행정고시 면접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데모를 했던 사람들은 공무원시험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며, 면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시험규정을 바꾸기 위해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는 관련 규정에도 없었는데, 시범적으로 집단면접시험을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탈락자가 많이 나왔으며, 이후 시험규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남태령 근처에 있는 교육부 교육개발원을 방문하여 그곳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면담하였으며, 제25회 행정고시 면접부터는 집단토의식 면접시험과 학교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국민윤리 과목을 행정고시 시험과목으로 추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공안기관에 신원조회를 하였는데, 그 공안기관이 안기부인지 경찰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인이 신원조회를 했던 기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원조회 좀 빨리 해주세요"라며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73]고 진술하였고,

신원조회 결과 시위관련자들이 표시된 명단이 넘어왔고, 고시과에서 면접 요약본을 만들 때 그 명단을 보고 포함시켜서 면접 참고자료로 만들었으며[74], 행정고시 면접생 요약

---

72) 2008. 7. 30, 10. 6 조사. 하○○는 1978.~1981. 총무처 고시1과장을 역임하였고, 고시국이 인사국에 통합된 이후에도 1~2년 정도 고시1과장을 하면서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시험관리업무를 하였다. 소○○은 하○○ 후임으로 1982. 8.~1983. 8.까지는 인사국 고시1과장을 역임하였다.

73) 하○○는 3차 면접 합격생을 대상으로 따로 인사과에서 신원조회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74) 하○○는 면접요약본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측으로부터 면접생들의 자료를 받다보니 분량이 너무나 많아, "행정고시 2차 성적, 지도교수 의견, 생활기록, 데모 경력"등을 요약본을 만들어, 학교 측에서 보내온 원 자료는 면접위원 책상 위 한쪽에 놓고, 면접위원들이 고시과에서 만든 면접생들에 대한 요약본

본은 16절지 1장에 조별 면접생 전체에 대해 작성하였고, 고시과 직원이 본인에게 "과장님, 행정고시 면접생들에 대한 요약본입니다"라고 보고하여 직접 보았는데, 그 요약본에는 조별 면접생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었고, 데모경력이 있는 면접생에 대해서는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고, 당시 면접에서 "데모"를 했다는 것은 국가관에 큰 결점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빨간 줄을 그어 놓은 것이며, 총무처장관의 결재는 국장이 부재중일 때는 본인이 직접 가서 맡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총무처 고시2과장 박○○[75]은 당시 고시2과는 고시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로 시험장 선정, 시험 진행, 면접시험 진행업무를 관리하였으며 김○○ 총무처장관의 시위전력자 면접탈락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라고 진술하였다.

총무처 인사국장 손○○[76]은 1981.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김○○ 총무처장관이 행정고시에서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반드시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인사국장[77]이 바쁘면, 과장이나 계장이 총무처장관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소결

총무처 고시과에서 1980.부터 사법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안기부에 1,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여 재학 중 시국과 관련된 문제행위자를 별도로 통보받아 합격심사에 반영했다는 점, 이○○ 고시국장은 제24회 행정고시 시험에서 김○○ 총무처장관의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는 구두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시위전력자는 탈락시키기로 총무처 고시과에서 방침을 정했으며, 이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안기부에 신원조회를 하여 "시위전력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고시1과장 하○○가 이○○ 고시국장으로부터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는 김○○ 총무처장관의 구두지시를 전달받았고, 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고시 면접방식과 시험면제규정과 시험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공안기관에 신원조회를 하여 "시위전력자 명단"을 제출받아 면접요약본을 만들었고, 시위전력이 있

자료를 보고 면접위원이 좀 자세히 봐야겠다고 판단하면 원 자료를 보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5) 2008. 8. 4, 9. 19 조사. 박○○은 1978.~1981. 총무처 고시2과장을 역임.

76) 2008. 7. 30 조사. 손○○은 총무처 인사국장으로 1980. 7.~1983.까지 역임.

77) 당시 총무처 인사국은 공무원 인사제도와 사무관 이상 공무원 발령 등을 하였으며, 고시국은 독립되었다가 인사국으로 다시 합쳐 1981년 인사제도과, 인사과, 교육훈련과, 고시1과, 고시2과로 구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는 면접생에 대해서는 빨간 줄을 그어놓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시험에서 시위전력자의 면접탈락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총무처가 시위전력자의 선정을 위하여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으로부터 학사징계 사항 등을 통보받았고, 안기부로부터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총무처 고시과에서 시위전력자의 행정고시 면접탈락 명단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탈락 요구 여부

1) 총무처 관계자 진술

총무처 고시국장 이○○[78]은 면접위원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가지는 않았으나 고시국 직원에게 "사전에 결정된 불합격자들을 어떻게 면접에서 탈락시키냐"고 물어보았고, 그 직원으로부터 "당시 안기부에서 불합격처리하라는 사람들을 직접 면접하는 면접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정부방침이 데모를 했던 사람들은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면접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알아서 탈락 점수를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고시국 성명불상 계장이 면접위원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는 인성과 국가관 등이 강화되었다고 면접요령을 이야기하였고, 불합격자로 사전에 결정된 수험생들을 면접하는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당시 면접채점표에 국가관, 품행, 전문지식, 정신자세 등 몇 가지 분야에 점수를 주었는데, 고시국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불합격자로 사전에 선정된 사람들은 적당히 표시나지 않게 구두시험(면접) 점수를 일부러 낮게 주어 탈락시켰다"고 보고를 받았으며, 자신이 직접 김○○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행정고시 2차 시험합격자들을 대상으로 3차(면접) 시험도 하지 않았는데 안기부에서 신원조회를 하여 불합격자를 사전에 결정한 것은 행정고시 시험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고, 당시 시국관련자를 행정고시 시험에서 불합격시키라는 총무처장관이나 안기부에서 내린 지시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당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만약 본인이 위 지시를 거부했다면 고시국장직에서 쫓겨나고, 반병신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78) 2008. 7. 29 조사.

이어서 1981. 제25회 행정고시 면접 시행 이전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제25회 행정고시 면접도 제24회 행정고시 면접 때와 마찬가지로 시위관련자들을 배제했을 것이며, 아마도 인원수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잘 알지 못하며, 만약에 제24회 행정고시 때 탈락되었던 사람들이 다음해 대거 합격되었다면 수험생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합격시켜주지 않았나 생각하며, 탈락자 수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보이며[79], 당시 국가관을 판단할 때 시국데모를 했는지를 포함하지 않았냐"고 진술하였다.[80]

한편, 총무처 고시1과장 하○○[81]는 이○○ 국장이 1980.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들과 고시국장실에서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면접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정부의 방침이기에 데모관련자들은 국가관 등을 고려하여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981.에는 고시국이 인사국으로 통폐합되면서 고시2과가 고시1과로 통합되어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 당시 본인이 직접 면접시험을 주관하였는데, 당시 손○○ 국장이 인사국장실에서 면접위원들과 커피타임을 할 때 "시위관련자는 고려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82].

고시2과장 박○○[83]은 1980.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 당일 면접위원들에게 "지금까지는 2차 필기시험까지만 합격하면, 기존의 행정고시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에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면접을 강화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시위전력자는 배제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면접위원들에게는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생들의 1차, 2차 필기시험 점수, 면접생의 학적부, 그리고 면접생의 지도교수가 작성한 수행평가 자료를 대학으로부

---

79) 실제로 25회 행정고등고시에서는 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21명 중 16명이 합격하였고, 5명이 2회 연속 탈락하였다. 또한 26회 행정고시에서는 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9명 중 8명은 합격하고 2회 연속 탈락한 사람은 1명에 그쳤다.

80) 2008. 7. 29 조사. 이○○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 속이 후련하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81) 2008. 7. 30, 10. 6 조사.

82) 하○○는 진술조서 작성 이후 1시간이 넘게 진술조서를 검토하면서, "당시 데모했던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에서 김○○ 총무처장관의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전체 맥락에서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진술한 내용 중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에서도 시위관련자 명단도 보여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면접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관에 대해서 면접 질문을 이렇게 해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에서부터 시위관련자는 배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에서도 그대로 시행했던 것이다"라는 진술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되었다.

83) 2008. 8. 4, 9. 19 조사.

터 받아 제공하였는데, 이 수행평가 자료에는 학교성적과 출결상황, 상벌상황(데모를 해서 처벌받은 내용), 서클활동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학적부에도 재학시절 시위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내용이 들어 있었고, A4 용지 크기 정도로 3~4장 분량이었다[84]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수행평가 자료를 면접생들이 면접 보러 들어오는 순서에 맞추어 행정고시 1차, 2차 시험성적과 학적부, 수행평가 자료를 면접위원 책상에 놓았고, 면접위원들은 면접생들의 평가자료로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사국장 손○○[85]은 제25회 면접위원 유○이 "당시 총무처 고시과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백종섭에 대해 시국관련자여서 탈락시켰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고등고시 면접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진술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유○○[86]는 1981.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에 중앙청 한 사무실에 면접위원들이 모여 있었으며, 성명불상 총무처 고시과 직원들이 들어와 면접요령과 면접절차, 면접채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말미에 성명불상 국장 또는 과장이 면접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행정고시 2차 합격생들 중에 학교 때 데모경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명단을 잠깐 보여주고 다시 가져갔으며, 명단에 몇 명이 적혀 있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적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총무처 성명불상 국장 또는 과장이 "행정고시 2차 합격자 중에서 학생데모에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자신이 "성적순으로 결정하면 되지 왜 꼭 데모했던 학생들을 탈락시켜야 하냐"라고 질의하자, 그 총무처 성명불상 국장 또는 과장이 "너무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말아달라, 2차 합격생 중

84) 박○○은 2008. 8. 4. 조사에서 "고시1과에서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 안기부에 신원조회를 하였고, 그 결과를 고시2과에서 받아서 면접위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3차 면접시험에서 면접생들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안기부에 신원조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08. 9. 19. 조사에서는 "당시 안기부로부터 신원조회를 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착각이었고, 행정고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안기부가 아닌 경찰관서로 신원조회를 한 것이다"고 진술했다가, 잠시 후 "행정고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한 것이 아니라 3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서에 신원조회 한 것"이라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85) 2008. 7. 30 조사, 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 유○에게 배웠기에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86) 2008. 9. 9 조사.

5~10%는 줄여야 하는데, 성적순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고, 데모하는 학생들 중에서 고려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공안기관(안기부)에서 2차 시험 합격자 중에 데모를 했던 학생 명단이 내려왔으므로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고려해주십시오"라고 말했으며, 당시 군사정권이 들어선 그 시절에 누가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었겠냐며, 어쩔 수 없었고 당시 함께 있던 면접위원들 중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면접과정에서 데모하는 학생으로 명단에 적힌 사람이 자신에게 면접을 보러 올 때, 성명불상 고시과 직원이 면접실로 살며시 들어와 데모학생이라고 가르쳐주고 갔으며, 데모학생 명단에 있는 학생을 직접 면접하면서 "속으로 너는 탈락할 것인데, 참 안되었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참석 면접위원과 합의하여 탈락을 결정하였으나 그 면접생이 누구였는지, 면접점수를 어떻게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당시 데모가 많아서 국가에서 데모를 했던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방침을 썼다고 생각하나, 당시 규정에 비추어볼 때 단순 시위전력을 이유로 행정고시 면접에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과거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87].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이○○[88]은 1981.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을 보기 전에 성명불상 총무처 관계자가 준 시위전력자 명단을 본 사실이 있으며, 당시 제25회 행정고시 2차 합격자 명단과 참고자료는 따로 있었고, 시위전력자 명단은 특이하게 고려해야 될 명단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총무처 고시과 직원이 시위전력자 명단을 주면서 무슨 요구를 하였는데, 그 요구의 강도가 고려해달라는 것인지, 꼭 떨어뜨려달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시위전력자 명단에 있는 면접생들을 면접 볼 때 참고해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며, 시위전력자 명단을 주면서 속된 말로 알아서 기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총무처 고시과 직원들이나 면접위원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시위전력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잘한 일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유○[89]은 1980.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은 아니었으나 제

87) 유○○는 제25회 행정고시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렵에 연세대 제자 중에 1차, 2차 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시위전력 때문에 3차 면접에서 탈락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인사국장을 찾아가 "학생 때 데모해서 경찰서에 이틀이나 삼일 정도 조사받다가 훈방되었는데, 구제를 부탁한다"고 했더니 인사국장이 "데모하는 학생은 지도하기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내가 너는 책임질 테니 공부 열심히 해라" 말했고, 그 학생은 다음회 합격하여 현재 고위직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88) 2008. 9. 23 조사.

89) 2008. 4. 10, 10. 1 조사.

24회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시험에서 대거 탈락된 사람들이 데모를 했던 학생들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고, 당시 군사정권이 들어선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김○○ 총무처장관이라면 충분히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는 지시[90]를 내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1981. 제25회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유○○ 교수 등이 총무처 고시과 직원으로부터 시위전력자는 행정고시 면접에서 배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와 함께 시위전력자 명단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일 것이며[91], 본인도 총무처 관계자로부터 면접 참고자료나 시위전력자 명단을 받았을 텐데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시기인 1982.경에 백종섭이 대학원에 응시하여 면접을 본 다음 "선생님이 1980.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저를 면접하셨는데, 탈락하였습니다. 행정고시 면접에서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라고 문의하여, 며칠 뒤에 총무처 고시과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처음에는 잘 알려주지 않았으나 시험위원이고 하니 알려준 것 같은데, 총무처 고시과 직원이[92] "그 사람(백종섭)은 학생시위자이기에 탈락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백종섭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학생시위전력 때문에 면접과 상관없이 탈락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군사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반문할 시대상황이 아니었으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시위전력을 이유로 탈락된 사람들이 구제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제24회 면접위원 손○○[93]는 제24회 행정고시 면접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총무처 고시국장 이○○이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총무처장관 김○○가 시위전력자를 배제하라는 지시와 시위전력자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했다면 "그 분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94]"라며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시위전력을 이유로 탈락하였다면 당시 규정에 비추어볼 때 어느 누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겠냐며, 잘못된 일이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움이 안 되

90) 김○○ 총무처장관은 군 출신으로 1981년 말경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무렵에 김○○ 장관에게 특강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김○○ 장관은 "발전정책 연구과정" 이라는 단기 과정에서 동창회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연설을 하면서 "정권 수호"에 대해 강성 발언한 것으로 보아 김○○ 장관이라면 충분히 행정고시 면접에서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1) 유○은 유○○ 교수와는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을 함께 하였고, 학회 일을 함께 하였기에 최근에도 연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92) 평소에 자신에게 전화를 했던 사무관급 이상으로 알고 있으나 이름은 기억나지 않음.

93) 2008. 9. 30 조사.

94) 이○○ 국장과는 서울대학교 선배였고,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함께 근무하였기에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어서 죄송하며, 피해를 입은 행정고시 면접탈락생들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양○○[95]은 "면접위원을 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김○○[96],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박○○[97]과 조○○[98]은 "면접위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세월이 오래되어 면접과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이○○ 고시국장과 하○○ 고시1과장이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에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시위전력자는 고려해달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총무처 고시과 관계자의 요구를 받은 제25회 면접위원 유○○는 행정고시 2차 합격자 중 시위전력자를 면접에서 탈락시켰다는 진술을 하였고, 제25회 면접위원 이○○, 유○, 제24회 면접위원 손○○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시위전력이 있는 박문화, 김현, 윤중기, 백종섭, 윤종규가 면접에서 불합격한 점을 종합할 때,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총무처 관계자들이 면접위원들에게 2차 합격된 면접응시생 중 시위전력자는 배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면접위원들이 시위전력자들에 대해 정당한 평가 없이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타

1) 면접시험에서 기타 위법·부당한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배국열은 자신이 왼쪽팔과 다리가 불편하여 지체장애 6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데,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연속으로 불합격한 이유가 자신의 장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총무처 발송 민원회신문[99]

위 회신문에는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95) 2008. 8. 28 조사.
96) 2008. 8. 17, 9. 26 조사.
97) 2008. 8. 20 조사.
98) 2008. 8. 18 조사.
99) 배국열의 모친 김○○가 민원을 제기하여 총무처 고일125-367(1982. 2. 3)로 회신을 한 것이다.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평정 5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명의 위원이 각각 15점 만점에 평균 10점 이상을 주어야 합격"하는데, 배국열은 합계가 9점으로 불합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차 시험 성적이 하위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이 되지 않으며 "면접시험 대상자 중 배국열 군보다 하위성적자도 면접시험에 합격한 예가 있으며, 배국열 군보다 상위성적자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있다"는 설명도 있다.

한편, 민원인이 "배국열이 신체장애자라는 조건 때문에 불합격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시 배국열 군과 함께 면접시험을 보아 합격한 자 중에는 신체장애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명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나) 참고인 진술

총무처 고시1과장 하○○는 당시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탈락시켜야 한다는 정부방침은 없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현재처럼 높지 않았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면접과정에 탈락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유○○는 당시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위 하○○와 유○○의 진술, 그리고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최종합격자가 모두 315명인 반면, 이 시기에 2회 연속 탈락한 사람(5명) 가운데 시위전력자(4명)를 제외한 유일한 탈락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으로 볼 때, 최종합격자 가운데 장애인도 포함되었다는 총무처의 해명은 이 사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나 배국열이 위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위법 부당한 사유로 탈락하였는지에 대해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2) 박문화의 행정고시 면접탈락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

신청인 박문석이 형 박문화가 시위전력을 이유로 행정고시에서 두 차례나 불합격하였고,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한바, 박문화가 행정고시 불합격을 이유로 자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참고인 진술

신청인 박문석[100]은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두 번이나 탈락한 형 박문화가 크게 낙담하여 말수도 적어지고 조용히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1982. 1.경 전화로 형 박문화가 청도 야산에서 자살했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이미 시신은 수습된 상태였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박문화의 형 박문수[101]는 "1982. 1.경 동생 박문화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사촌형과 함께 청도역에 도착하여 산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니 소나무 밑에 동생 박문화가 옷이 다 벗겨진 채 가마니에 덮여 있었고, 경찰이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했다고 말하였고, 동생의 사망이 행정고시 면접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두 번이나 탈락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면 3차 면접시험은 자동적으로 합격하는데 두 번이나 연속하여 불합격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해서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동생 박문화가 자살을 하여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대학동기 박○○[102]은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두 차례나 탈락하여 이를 비관하여 대구 청도 근처 야산에서 목을 매어 죽었으며, 이후 친구들과 박문화가 사망한 청도 야산을 찾아갔으나 날이 어두워져서 근처에 있는 청도역 부근에서 죽음을 애도하며 밤새워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대학 동기 유○○[103], 문○○[104], 김○○[105], 심○○[106], 행정학과 후배 최○○[107], 장○○[108]은 "1982. 1.경 박문화가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두 차례나 탈락하여 이를 비관하여 대구 청도 근처 야산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학동기 권○○[109]는 "1982.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3. 말경 특사로 석방된 후 1984.경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성명불상 친구로부터 '박문화가 참 안되었다. 시위전력 때문에 행정고시 면접에서 떨어졌고,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00) 2008. 8. 20 조사.
101) 2008. 6. 25 조사.
102) 2008. 5. 22 조사.
103) 2008. 4. 11 조사.
104) 2008. 5. 22 조사.
105) 2008. 5. 22, 6. 9 조사.
106) 2008. 10. 27 조사.
107) 2008. 3. 18, 3. 21 조사.
108) 2008. 4. 1 조사.
109) 2008. 9. 25 조사.

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지도교수 김○○[110]은 "1981.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날을 앞두고 박문화가 걱정이 되어 행정학과 동기 김○○에게 박문화 집에 가보라고 하였으나 바빠서 그날 못가고, 며칠 뒤에 가게 되었는데, 박문화가 사망한 후라 너무 늦어 안타까웠으며, 박문화는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서 두 차례나 떨어진 것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안다[111]"고 진술하였다.

총무처 관계자 하○○[112]는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소문에 행정고시 탈락생 중에서 박문화가 두 번 탈락해서 자살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총무처로 탄원서나 항의가 없었기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소결

위 진술을 종합하면, 박문화가 1981. 12. 30. 제25회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고 며칠 되지 않아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2회 연속으로 불합격한 것이 주요한 동기가 되어 1982. 1. 1. 경북 청도 야산에서 자살 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이 사건은 총무처에서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면접응시자들을 불합격시킨 사건이다. 그중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박문화(당24세)는 2회 연속으로 불합격한 것이 주요한 동기가 되어 자살하였다.

1980. 총무처장관은 "앞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고시에 있어서 국가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라. 학교 다닐 때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하라"고 구두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총무처는 행정고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소수점까지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기에 점수를 바꿔치기하거나 조작할 수 없어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시위 관련자들을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

110) 2008. 6. 19, 10. 27 조사.

111) 김○○은 왜 제자 박○○에게 박문화의 집에 가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한 박○○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12) 2008. 10. 6 조사.

위 방침에 따라 총무처는 제24회 및 제25회 면접시험 실시 이전에, 면접 응시자들의 각 대학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응시자들의 시위전력 자료를 넘겨받아, 시위전력자 명단을 작성한 후 면접위원들에게 통보하여 불합격시키도록 요청하였다.

면접위원들은 자신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근거하여 면접응시자들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처의 요청에 의해 자율적 평가를 포기하고 시위전력이 있는 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탈락시켰는바, 이때 박문화, 백종섭, 김현, 윤중기, 윤종규 등 5명은 시위전력자로 지목되어 면접에서 불합격되었다.

총무처장관의 요구는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면접위원들이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총무처장관의 요구에 의해 시위전력이 확인된 위 박문화 등에게 불합격 평가를 한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113]. 따라서 총무처장관이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에서 위 박문화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면접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총무처장관의 이와 같은 위법한 불합격 처분은 위 박문화 등이 국가공무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응시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 권고사항

이상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 과정에서 총무처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면접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자율적으로 평가하기를 포기하고 불합격 점수를 주어 2차례에 걸쳐 행정고시 면접시험에 불합격시킨 위법행위에 대하여 박문화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113)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일부개정 1978. 12. 05 (법률 3150호).
-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첨 1] 1974.~1990. 행정고시 시험 시행통계[114]

구분 / 시행연도	회별	선발예정인원	3차 응시자			최종합격자	면접탈락자
			2차 면제자	2차 합격자	소계		
1963	1	50	–			40	
1964	2	30	–			21	
1965	3	30	–			28	
1966	4	50	–			50	
1967	5	70	–			24	
1968	6	60	–			45	
1969	7	60	–			5	
보도직		7	–			38	
1970	8	100	–			38	
1970	9	70	–			27	
1971	10	200	–			188	
1972	11	100	–			41	
1972	12	150	–			47	
1973	13	150	–			96	
1973	14	150	–			116	
1974	15	100	–	47	47	47	
1974	16	100	–	68	68	68	
1975	17	100	–	100	100	100	
1975	18	100	–	101	101	101	
1976	19	150	–	73	73	73	
1977	20	77	–	55	55	55	
1977	21	150	–	134	134	131	
1978	22	250	–	250	250	250	
1979	23	250	–	248	248	248	
1980	24	250	–	208	208	187	–
1981	25	150	21	121	142[115]	128	–
1982	26	110	8	113	122	109	–
1983	27	100	11	117	128	100	–
1984	28	100	–	121	121	100	
1985	29	100	–	113	113	100	
1986	30	100	–	111	111	100	
1987	31	150	–	155	155	148	
1988	32	150	–	156	156	150	
1989	33	150	–	155	155	149	
1990	34	180	–	179	179	173	

114) 행정안전부 인사실에서는 1963.~1979.까지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서울신문과 관보를 통하여 1974.~1979.까지 2차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였다. 다만, 1963.~1973. 2차 합격자 명단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15)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중기는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 미응시하였기에 141명으로 기재

[별첨 2]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최종불합격자 명단[116] 및 2차 점수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2차 평균합격점수	합격 여부
제24회(1980년) 2차 합격선(커트라인) 57.00	○○○	57.09.28	58.88	25회 합격
	○○○	58.06.02	57.83	25회 합격
	○○○	55.08.15	60.94	25회 합격
	○○○	58.11.24	57.22	25회 합격
	○○○	55.01.27	57.16	25회 합격
	○○○	54.03.03	57.05	25회 합격
	○ ○	58.11.21	61.72	25회 합격
	○○○	56.08.06	57.88	25회 합격
	○○○	55.05.02	58.77	25회 합격
	○○○	57.07.27	59.83	25회 합격
	○○○	57.08.20	57.38	25회 합격
	○○○	57.11.05	59.44	25회 합격
	○○○	53.05.26	57.00	25회 합격
	○○○	59.04.08	57.05	25회 합격
	○○○	58.09.14	58.94	25회 합격
	○○○	59.09.27	58.27	25회 합격
	백종섭	55.06.20	57.55	25회 탈락
	김 현	56.01.17	61.22	25회 탈락
	윤중기	55.03.03	63.00	25회 탈락
	배국열	56.03.18	57.22	25회 탈락
	박문화	57.12.01	57.61	25회 탈락
제25회(1981년) 2차 합격선(커트라인) 52.52	○○○	56.11.15	52.71	26회 합격
	○○○	57.08.20	52.76	26회 합격
	○○○	57.07.07	53.00	26회 합격
	○○○	60.04.26	55.61	26회 합격
	○○○	58.09.27	52.52	26회 합격
	○○○	60.09.01	54.85	26회 합격
	○○○	60.02.20	55.00	26회 합격
	○○○	49.11.03	52.52	26회 합격
	윤종규	55.10.13	62.33	26회 탈락

되어야 하나, 행정안전부에서는 14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116) 박문화, 백종섭, 김현, 윤중기, 배국열은 '합격 여부'란에 '25회 탈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따라서 박문화 등 5명은 제25회 최종불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첨 3] 1979.~1982. 행정고시 시험시행계획 공고

1979년도 시험시행계획공고 — 1979. 1. 10, 서울신문 8면	1. 제23회 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250명(단, 제2차 시험성적이 전과목 평균 56.00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면접시험과 서류심사 3.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980년도 시험시행계획공고 — 1980. 1. 9, 서울신문 8면	1. 제24회 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250명(단, 제2차 시험성적이 전과목 평균 57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면접시험과 서류심사 3.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981년도 시험시행계획공고 — 1981. 1. 9, 서울신문 8면	1. 제25회 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150명 2.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집단토의식 면접병행실시, 학교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 서류심사 3.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함 4. 특기사항(종전과 달라진 사항) ・사법시험 및 각종 채용시험에 "국민윤리" 과목 추가 ・면접시험의 강화 : 학교성적 및 생활기록 반영, 집단토의식 면접 병행 실시 – 국가관, 공직관, 반공 등 정신자세 평가 강화
1982년도 시험시행계획공고 — 1982. 1. 9 서울신문 8면	1. 제26회 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110명(일반행정 75, 교육 10명, 재경 15 사회 10명) 2.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집단토의식 면접병행실시, 학교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 서류전형 3.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함 4. 특기사항 ・종래 단일직으로 시행하여 오던 행정고등고시를 "일반행정", "재경", "교육", "사회" 직류로 세분하여 모집 ・면접시험의 강화 : 학교성적 및 생활기록 반영, 집단토의식 면접 병행 실시 ・국가관, 공직관, 반공 등 정신자세 평가 강화